

# 동사 '찾다'의 의미망 구축 연구\*

- 말뭉치 예문 분석을 중심으로 -

박종호\*\*

|| 차례 ||

1. 서론
2. 최근의 연구 및 이론적 배경
3. 동사 '찾다'의 의미 분석 및 개념 속성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말뭉치 예문을 분석하여 동사 의미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동사 '찾다'의 속성을 체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동사 '찾다'를 대상으로 말뭉치 예문을 분석하여 개념명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각 개념명에서 기본 의미와 함께 어떠한 격틀 정보와 논항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밝히었다. 또한 개별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적 특성과 상황 성분 등의 속성들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물은 동사 의미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언어 교육, 언어정보처리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동사 의미망, 상적 특성, 상황 성분, 격틀, 논항

\* 부족한 원고를 심사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조교수

## 1. 서론

이 연구는 동사 ‘찾다<sup>1)</sup>’를 대상으로 동사 의미망 구축에 활용 가능한 개별 동사의 속성을 체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인간의 인지 구조를 밝히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간의 언어를 지식 베이스화 하여 컴퓨터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어휘 의미망의 구축인데, 어휘 의미망(semantic network)은 인간의 두뇌에 저장된 어휘들을 그물망처럼 구조화시킨 것으로, 자연언어 처리에서 대용량의 어휘를 어휘 간의 연상 관계나 의미 관계로 보여주는 지식 베이스이다.

국내의 어휘 의미망 구축은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져왔는데,<sup>2)</sup> 어휘 의미망의 구축을 포함하여 자연언어 처리가 주로 명사에 한정되어 왔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나 사건 등에서 자연언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사건을 기술하는 중심이 되는 동사 의미망 구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사 의미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다의성에 주목해야 한다. 동사는 한 형태가 다양한 환경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다의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사건 기술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때 다른 논항과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 형태의 동사는 그 관계에 따라

1) 동사 ‘찾다’는 국립국어원(2005)에서 발간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sup>2)</sup>』에서 2,020의 빈도(순위 181위)로 그 사용 양상을 보였으며, 강범모·김흥규(2009)의 『한국어사용빈도』에서는 빈도가 11,214로 57순위의 비교적 높은 사용 양상을 보이는 동사이다.

2) 어휘 의미망은 어휘가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망인데, 국외에는 워드넷, 유로워드넷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울산대학교의 한국어 의미망,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어휘 개념망, 한국과학기술원의 다국어 어휘 의미망, 국립국어원의 세종 의미부류 체계 등이 구축되어 있다.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각 의미별 개념과 속성 등은 독립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동사 의미망에서 한 형태의 동사가 갖는 각각의 의미는 독립된 하나의 개념으로 판단해야 하고, 각 개념별로 그 속성을 밝혀야만 양질의 동사 의미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 어휘는 독립적인 존재이며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성을 표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동사 '찾다'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동사 의미망 구축에서 각 개념별로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말뭉치에서의 의미를 분석하고 개념명을 설정하여 각 개념별로 동사 의미망 구축에 쓰일 수 있는 속성을 체계화하겠다.

## 2. 최근의 연구 및 이론적 배경

### 2.1. 최근의 연구

최근 동사 의미망 구축 연구들은 체계의 정립이나 구축의 실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sup>3)</sup> 그런데 정제된 동사 의미망 구축에 필요한 개별 동사의 속성에 관한 연구들은 방대한 양의 의미 분석과 각 의미별 개념, 각 개념 간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체계화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동사 의미망 구축과 관련한 연구들도 많아야 하겠지만 동사 자체에 관한 연구들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동사의 의미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로는 이기동(2000), 정주리(2005), 이민우(2008), 오현정(2010), 박보연(2011), 박종호(2012), 이수련(2013) 등

---

3) 최근 동사 의미망과 관련한 연구는 도원영 외(2004), 이동혁·이봉원(2005), 최경봉·도원영(2005), 한정환·도원영(2005), 이봉원 외(2005), 이숙의(2006), 김혜경(2007), 정병철(2009) 등이 있다.

이 있다.

이기동(2000)에서는 동사 ‘가다’의 의미 확장에 대하여, 은유 6가지와 함께 의미 확장에 쓰이는 기제 환유와 주관적 이동 등을 분석하여 논의하였으며, 정주리(2005)에서는 구문문법과 틀의미론적 방법론으로 동사 ‘가다’의 ‘NP을/를’ 명사구가 실현되는 구문과 그 외의 다양한 구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민우(2008)에서는 사전과 코퍼스 분석으로 동사 ‘지다’를 분석하여 다의적 의미를 추출하고 문맥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오현정(2010)에서는 동사 ‘걸다’의 기본 의미를 살피고 그 의미 확장의 양상과 유형을 의미양상의 근원과 범위에 따라 나누어 도식화한 논의를 하였다. 박보연(2011)에서는 동사 ‘열다’를 대상으로 논항구조, 각 논항의 의미역, 의미부류 그리고 계열관계와 통합관계에 있는 어휘들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다의를 분석했으며, 박종호(2012)에서는 동사 ‘알다’의 개념 체계 중 ‘인식’의 하위 개념을 ‘감지’, ‘간파’, ‘관심’ 등으로 구분하고 각 개념별 메타속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수련(2013)에서는 동사 ‘보다’를 대상으로 시각 동사와 인지동사로서의 차이점을 의미적, 통사적 특징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개별 동사에 관한 연구가 여러 관점에서 시도되어 왔지만 동사 의미망 구축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한 개별 동사의 속성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많지 않으며, 특히 이 연구의 대상인 ‘찾다’와 관련한 연구 역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sup>4)</sup>

그 이유는 동사 의미망에서 대상이 되는 동사의 수도 상당한 양일뿐만 아니라 각 동사의 세분화된 의미별 속성의 분석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사 의미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제

4) 개별 동사 ‘찾다’와 관련한 연구에는 유세진·최윤희·이정민(2008)에서 ‘찾다’의 상적 의미를 분석한 것이 있지만 전체적인 분석 내용과 논의 자체가 상적 의미에 한정되어 있다.

언어 사용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 말뭉치 예문을 분석하여 동사 '찾다'의 다양한 의미별 속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 2.2. 이론적 배경

자연언어 처리에서 지식 베이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온톨로지<sup>5)</sup>는 인간과 컴퓨터 간 개념 표현을 공유하기 위한 개념화의 명시적인 규약이다. 온톨로지는 본래 철학에서 존재의 본질을 연구하는 형이상학의 한 갈래인 '존재론'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자연언어 처리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쓰이고 있다.

어휘 의미망 구축에서 쓰이는 온톨로지는 개념화된 체계로서 어휘와 그 어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동사 의미망을 구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개념 체계의 구축과 개념명의 설정이다. 개념 체계는 큰 틀에서의 동사 의미망 구축과 관련이 있으며, 개념명의 설정은 설정된 개념 체계 속에서 각 개념별로 개별 동사의 각 의미별 속성을 표상할 수 있는 원소적 개념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동사 의미망 구축에서 개별 동사를 분석하여 개념 체계와 개념명을 설정하는 방법은 사전 정의문을 이용하는 방법, 연구자의 직관이나 전문 지식을 이용하는 방법, 기 구축된 의미망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방법 이외에 말뭉치의 예문을 분석하여 그 사건에서의 의

---

5) 온톨로지에 관해 Gruber(1993)는 “An ontology is an explicit specification of a conceptualization(온톨로지란 어떤 관심 분야를 개념화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정형화한 명세서)”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최호섭·옥철영(2002:307)에서 “자연언어 처리에서 온톨로지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들과 그 개념들의 속성, 그리고 개념들이 상호 간 의미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식 베이스”라 정의하고 있다.

미를 기반으로 개념명 더 나아가 개념 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사 의미망을 구축하게 되면 실제 사용 언어를 객관적이면서도 세밀하게 분석한 동사 의미망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sup>6)</sup>

우선 행위나 작용을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동사는 다의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다양한 의미가 나타날 수 있어서 간결한 개념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사 의미망 구축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말뭉치 예문 분석을 통해 명사 개념명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동사의 다의성과 관련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며, 향후 많은 동사를 대상으로 의미망을 구축하는 경우 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형태의 동사도 각각의 개념명에 소속시킬 수 있는 군집화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설정한 개념명별로 동사 ‘찾다’의 개별 속성을 체계화해야 한다. 개별 속성에는 기본 의미와 격틀 구조, 논항 정보 등이 속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상황 유형과 상황 성분 또한 속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상황 유형과 상황 성분은 동사의 시간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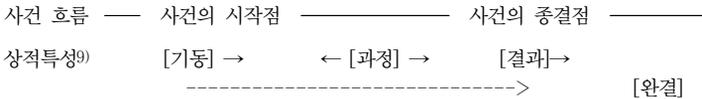
상황(situation)이란 하나의 사건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을 의미하는데, 상황 유형은 동사의 내적 시간 특성과 관련이 있다.<sup>7)</sup> 이호승(1997:19)에서는 동사의 내적 시간 특성은 상적 특성들의 자질 결합인데, 이 상적 자질의 결합은 동사가 지시하는 상황이 어떠한 내적 시간 구조를 갖는가를

6) 이 연구에서는 개념 체계의 설정이 논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 체계의 설정과 관련한 논의는 논외로 하겠다.

7) Gunter Radden · Rene Driven(2007)/임지룡 · 윤희수역(2009:276)에서 상황의 구성 원소로 개념핵, 시간도식, 고정화, 배경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시간도식과 관련된 원소가 상황 유형이다. 본고에서는 상적 특성으로 칭하겠다.

뜻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상황 유형은 단순히 동사가 문법적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적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 속에서 갖게 되는 시간 구조이며, 이는 동사가 다른 논항과 결합하여 만드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내적 시간 구조를 갖게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속성인 것이다.<sup>8)</sup> 내적 시간 구조를 상적 특성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간 구조에 따른 상적 특성



상적 특성과 함께 동사의 속성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상황 성분이 있다. 유로워드넷에서는 의미적 특성을 토대로 사건의 유형과 관련이 있는 상황 성분을 제시하고 있는데<sup>10)</sup>, 최경봉·도원영(2005:236~237)은 이 상황 성분을 기반으로 하여<sup>11)</sup>, 사건의 유형을 ‘사건에서의 변화’와 ‘사건에서의 작

---

8) 상황 유형은 상 자질들의 결합으로 동사의 시간적 특성을 지식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상적 특성으로 칭하겠다.

9) 상적 특성에서 사건의 시작이자 원인의 특성은 [기동]이고, 사건의 흐름을 나타내는 특성은 [과정]이다. 사건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특성은 [결과]이고, 어떤 행위나 사건 장면이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 과정을 포함하면서 완결점에서 사건 행위가 완성되는 특성은 [완결]이다.

10) 유로워드넷에 대해서는 김현권(2000), Vossen, P.(ed)(1998)/한정환 외 공역(200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1) 유로워드넷에서 의미적 특성을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 성분은 ‘용도(Usage)’, ‘시간(Time)’, ‘사회성(Social)’, ‘수량(Quantity)’, ‘목적(Purpose)’, ‘소유(Possession)’, ‘물리적(Physical)’, ‘양태(Modal)’, ‘정신(Mental)’, ‘방식(Manner)’, ‘처소(Location)’, ‘경험(Experience)’, ‘존재(Existence)’, ‘외적상태(Condi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원인(Cause)’, ‘작인성(Agentive)’, ‘자극(Stimulating)’, ‘현상(Phenomenal)’ 등이다.

용'으로 분류하였다.

‘사건에서의 변화’는 ‘양, 질, 소유, 존재, 장소’ 등의 변화이며, ‘사건에서의 작용’은 ‘자연 작용, 상호 작용, 정신 작용, 지각 작용’ 등인데, 상황 속성을 기반으로 하여 분류한 사건의 유형은 하나의 사건에서 동사가 지시하는 의미와 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논항의 특성, 동사 자체의 성격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개별 동사의 속성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제 동사 ‘찾다’가 동사 의미망에 활용될 수 있는 속성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말뭉치 예문을 분석하여 개념명을 설정하고, 설정된 개념별로 기본 의미, 상적 특성, 상황 성분, 격틀, 논항 등의 속성들을 제시하겠다.

### 3. 동사 ‘찾다’의 의미 분석

#### 3.1. 말뭉치에서의 ‘찾다’ 의미 분석을 통한 개념명의 설정

양질의 동사 의미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동사별로 개별 의미에 따라 그 속성을 분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말뭉치 예문을 분석하여 각 예문에서 동사 ‘찾다’가 쓰이는 의미에 따라 어떤 개념에 소속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sup>12)</sup>

다음은 이 연구의 분석 대상 말뭉치 예문 2,899개를 분석한 결과<sup>13)</sup>, ‘찾

12) ‘찾다’의 의미를 분석하여 기술하는 명사형 개념명은 기 구축된 카이스트의 다국어 어휘 의미망 개념 체계를 검색하여 각 의미에 부합하는 명사 개념명을 예비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명사 개념명을 사전에 등재된 명사 의미 기술과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개념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말뭉치 예문을 분석하여 표상한 개념명과 그 의미 기술은 모두 국립국어원(1999)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을 기반으로 하겠다.

13)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말뭉치 예문은 모두 국립국어원의 언어정보나눔터

다'와 관련하여 공통적인 의미를 보이는 9개의 예문을 추출한 것이다.<sup>14)</sup>

- 예1) ㄱ. 고객은 나보다 젊고 세련된 영업사원을 찾아 야속하게 떠났다.  
 ㄴ. 나토군의 개입이 코소보의 인권상황을 개선했는가라는 의문에 아직 국제사회는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ㄷ. 유족을 만나기 위해서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  
 ㄹ. 아빠는 가족을 위해 몸에 덜 해로운 저공해식품을 찾아 시장을 헤맸다.  
 ㄹ. '보다'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이 14가지가 된다.  
 ㄴ. 6번홀까지 드라이브가 흔들렸지만 홀인원 이후 자신감을 찾았다.  
 ㄷ. 오늘 오후 (은행에서) 돈을 찾아 그 값을 지불할 것이다.  
 ㄹ. 건조한 날씨 탓에 목감기로 병원을 찾았다.  
 ㄷ. 준호 대입 문제로 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을 찾으십니다.

동사 '찾다'는 예1 ㄱ)에서 고객이 어떤 목적을 갖고 영업사원을 만나기 위한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살피어 찾음'의 뜻이 있는 '탐색'의 개념명에 소속될 수 있다.

예1 ㄴ)은 나토군이 코소보의 사태에 개입하여 인권 상황을 개선했는가에 대한 답을 밝히려는 노력과 관련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의 뜻이 있는 '규명'의 개념명에 소속될

(<http://ithub.korean.go.kr>)에서의 검색 결과임을 밝힌다.

14) 말뭉치 예문 2,899개는 수작업으로 그 개념을 분류하였는데, 우선 전체 말뭉치 예문 중 500개의 예문을 대상으로 카이스트 어휘의미망에서 예비로 선정한 개념명과 사전 의미 기술을 이용하여 그 개념명과 사용 수를 헤아렸다. 이렇게 선정한 개념명의 큰 틀을 대상으로 다시 나머지 2,399개의 예문을 각 개념별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500개의 예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던 개념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다시 예비로 선정한 개념명과 사전 의미 기술을 이용하여 그 개념명을 설정하였다. 위 9개의 예문은 각 개념명에 속한 예문을 추출한 것이다.

수 있다.

예1ㄷ)은 어떤 행동주가 국군수도병원이라는 장소로 이동하여 유족을 만나기 위한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가서 만나거나 봄.’의 뜻이 있는 ‘방문’의 개념명에 소속될 수 있다.

예1ㄹ)은 아빠가 저공식품을 자기 것으로 확보하여 갖기 위한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의 뜻이 있는 ‘취득’의 개념명에 소속될 수 있다.

예1ㄱ)은 동사 ‘보다’의 의미를 검색하여 밝히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한 단서나 증거를 찾기 위하여 살펴 조사함.’의 뜻이 있는 ‘검색’의 개념명에 소속될 수 있다.

예1ㄴ)은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한 후에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태로 회복하다.’의 뜻이 있는 ‘회복’의 개념명에 소속될 수 있다.

예1ㄸ)은 은행에 맡겼던 돈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로 거두어들임.’의 뜻이 있는 ‘회수’의 개념명에 소속될 수 있다.

예1ㅇ)은 어떤 행동주가 목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의 뜻이 있는 ‘요청’의 개념명에 소속될 수 있다.

예1ㅈ)은 준호의 대학 입학 문제로 인하여 원장 선생님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위하여 불러들임.’의 뜻이 있는 ‘부름’의 개념명에 소속될 수 있다.

이상 말뭉치 예문을 분석하여 공통으로 추출한 개념명은 ‘탐색, 규명, 검색, 회수, 방문, 취득, 요청, 회복, 부름’ 등 총 9개인데,<sup>15)</sup> 말뭉치에서 ‘찾다’

15) 9개의 개념명은 단순히 어떤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미 성분들을 공유하는 의미집합 혹은 의미 이해의 외형적 틀인 의미 영역 (semantic domain)을 말한다. 본고에서 개념명은 동사 의미망과 관련하여 동사 ‘찾다’

가 각 개념별로 쓰인 사용 수와 그 백분율, 빈도순 등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찾다'의 각 개념별 사용 빈도수

개념명	사용 수	백분율	빈도순
탐색	1,596	55.1%	1
규명	492	17%	2
방문	465	16%	3
취득	127	4.4%	4
검색	62	2.1%	5
회복	55	1.9%	6
회수	47	1.6%	7
요청	31	1.1%	8
부름	24	0.8%	9
합계	2,899	100%	

동사 '찾다'의 경우 2,899개의 예문에서 1,596회(55.1%) 사용된 '탐색'의 개념이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규명'은 492회(17%), '방문'은 465회(16%), '취득'은 127회(4.4%), '검색'은 62회(2.1%), '회복'은 55회(1.9%), '회수'는 47회(1.6%), '요청'은 31회(1.1%), '부름'은 24회(0.8%) 등의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다.<sup>16)17)</sup>

의 속성을 밝히기 위한 외형 틀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나아가 동사 전체의 의미망 구축에서는 어휘의 군집화를 위한 기본 그릇이다. 물론 '찾다'와 관련한 개념명은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명사로 표상한 가장 최적의 개념명이며, 이에 대한 잘못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16) '찾다'의 개념명 설정을 위해 각 의미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사용 수에 따른 분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결과물은 동사 어휘 의미망의 개념명이나 개념 체계 설정에서 그 토대가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 향후 한국어사전이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로써 기여할 수도 있다.

17) 익명의 심사자께서 '찾다'의 개념이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고견을 주신 데

지금까지 말뭉치 예문을 분석하여 동사 ‘찾다’의 개념명을 설정하였다. 이제 고빈도 개념부터 동사의 의미망 구축에서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개별 속성을 분석하여 기술하겠다.

### 3.2. 개념별 ‘찾다’의 의미 분석

이 장에서는 동사 ‘찾다’가 각 개념명 속에서 어떠한 속성을 갖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각 예문을 통해 상황을 구성하고, 그 상황 속에서 상적 특성, 상황 성분, 격틀 정보, 논항 정보 등의 개별 속성을 분석하여 기술하겠다.

#### 3.2.1. ‘탐색’ 개념에서 ‘찾다’

예2) 고객은 나보다 젊고 세련된 영업사원을 찾아 야속하게 떠났다.

예2)에서 행동주(agent)인 ‘고객’은 어떤 목적(purpose)을 위한 최종 결과 이전에 그 선행 사건으로 대상(theme)인 ‘영업사원’을 만나는 ‘탐색’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2)를 기반으로 사건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3) 개념명 ‘탐색’에서의 상황

- ① 행동주(agent)인 ‘고객’이 대상물(theme)과 관련한 어떠한 목적(purpose)이 생겨남.
- ② 행동주(agent)인 ‘고객’은 이 목적(purpose)을 해결하기 위해 대상(theme)인 ‘영업사원’을 탐색하는 행위를 함.
- ③ 목적(purpose) 달성을 위한 대상(theme)을 만나게 됨.

---

대해 동의한다. 그런데 본고에서의 개념은 2,899개의 말뭉치 예문의 분석에 한정된 것임을 밝혀둔다.

위 예3)의 상황에서 '목적(purpose) 발생-탐색-해결'의 사건 순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①의 경우 목적이 발생하는 [기동]의 상적 특성을 갖게 된다면, ②에서의 '찾다'는 사건의 해결로 가는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정]의 상적 특성을 갖게 된다.

다음으로 '찾다'의 속성으로 논항과 격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탐색' 개념명에서의 '찾다'는 행동주(agent), 대상(theme) 등의 논항이 속성으로 나타난다. 행동주(agent)는 [인간] 자질의 명사 논항이고, 대상(theme)은 [인간], [인공물], [장소], [추상적 존재] 자질의 명사 논항이 된다. 또한, 격틀 구조는 'N이/가 N2을/를 Vst-'가 된다.

'탐색'에서의 '찾다'는 인간의 행위가 지각에 의해 나타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지각 작용]의 상황 성분을 갖게 된다.

### 3.2.2. '규명' 개념에서 '찾다'

예4) 나토군의 개입이 코소보의 인권상황을 개선했는가라는 의문에 아직 국제사회는 (나토군의 개입에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4)에서 사건의 시작은 행위주(agent)인 '나토군'이 사건인 '코소보의 사태'에 개입하여 인권상황을 개선했는가 하는 의문점에서 출발한다. 이 의문에 대하여 행위주(agent)인 '국제사회'는 착점(goal)인 '해답'을 밝히려 노력하고 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사건을 구성하게 된다. 예4)를 사건 상황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5) 개념명 '규명'에서의 상황

- ① 코소보 사태가 발생함.
- ② 행동주(agent) '나토군'이 자극(stimulus) '코소보의 사태'에 개입함.
- ③ 행동주(agent) '국제사회'가 자극(stimulus) '나토군의 행위'에 대해 의

문을 갖게 됨.

- ④ 행동주(agent) ‘국제사회’가 처소(location)인 ‘나토군의 행위’에서 인권 상황을 개선했는가에 대한 답을 ‘규명’하는 행위를 함.

위 예5)의 상황은 ‘코소보의 사태-해결을 위한 나토군의 개입-국제사회가 나토군 행위에서 그 정당성을 탐색’의 사건 순서를 보인다. ①은 코소보 사태가 발생한 것은 사건의 시작으로 [기동]의 상적 특성을 갖게 되고, ②와 ③의 경우 사건의 해결 과정을 위한 [과정]에 해당하며, ④에서 ‘규명’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비록 명확한 답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의 마무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의 상적 특성을 갖게 된다.

‘규명’의 개념명에서 ‘찾다’는 행동주(agent), 처소(location), 착점(goal) 등의 논항이 속성으로 나타난다. 행동주(agent)는 [인간]이나 [단체] 자질의 명사 논항, 처소(location)는 [인간활동] 자질의 명사 논항이 되며 착점(goal)은 [정신], [인과], [논리] 자질의 명사 논항이 된다. 이 논항을 바탕으로 한 격틀 구조는 ‘N1이/가 N2에서 N3을/를 Vst-’가 된다.

‘규명’에서의 ‘찾다’는 사건 상황에 대해서 인간이 사실 판단을 하여 밝히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신 작용]의 상황 성분을 갖게 된다.

### 3.2.3. ‘방문’의 개념에서 ‘찾다’

예6) 유족을 만나기 위해서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

예6)에서 사건은 이미 일어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발생한 후에 행동주(agent)가 죽은 사람들의 가족인 유족을 만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이라는 처소(location)로 이동한 사건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예6)을 사건 상황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예7) 개념명 '방문'에서의 상황

- ① 사람이 죽는 어떤 사건(a)이 이미 발생함.
- ② 이미 발생한 사건(a)로 인하여 유족들이 생겨나게 됨.
- ③ 행동주(agent)는 유족을 만나기 위해 처소(location)인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하여 만남.

위 예7)의 상황은 '죽음과 관련한 사건 발생(a)-유족이 생김-유족과의 만남'의 사건 순서를 보인다. 우선 행동주(agent)가 병원을 방문하도록 한 ①의 사건(a)은 행동주 행위의 이유이자 사건의 시작이기 때문에 [기동]의 상적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②는 사건(a)에 따른 행위의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과정]의 상적 특성이며, ③에서 '찾다'는 ①과 ②에 의해서 행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의 상적 특성을 갖게 된다.

'방문'의 개념명에서 '찾다'는 행동주(agent), 처소(location) 등의 논항이 속성으로 나타난다. 행동주(agent)는 [인간]이나 [단체] 자질, 처소(location)는 [장소] 자질의 명사 논항이 된다. 이 논항을 바탕으로 한 격틀 구조는 'N이/가 N2을/를 Vst-'가 된다.

'방문'에서의 '찾다'는 한 장소로의 이동에 의해 그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소 변화]의 상황 성분을 갖게 된다.

### 3.2.4. '취득'의 개념에서 '찾다'

예8) 아빠는 가족을 위해 몸에 덜 해로운 저공해식품을 찾아 시장을 헤맸다.

예8)에서 사건의 시작은 행동주(agent)인 '아빠'가 '공해식품'의 유해성을 인지한 것이다. 수혜주(benefactive)인 가족을 위해서 대상(theme)인 '저공해식품'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사건을 구성할 수 있다. 예8)

을 사건 상황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예9) 개념명 ‘취득’에서의 상황

- ① 행동주(agent)가 ‘공해식품’의 유해성을 인지함.
- ② 행동주(agent)는 수혜주(benefactive)인 가족을 위해 대상(theme)인 ‘저공해식품’을 확보하려 함
- ③ 행동주(agent)는 처소(location)인 ‘시장’을 돌아다니는 행위를 함.

위 예9)의 상황은 ‘유해성 인지-대체 식품 확보 의지-확보를 위한 행위’의 사건 순서로 나타낼 수 있다. ①에서는 ‘저공해식품’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공해식품’의 유해성을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시작으로 [기동]의 상적 특성을 갖게 되며, ②와 ③은 수혜주를 위해 ‘저공해식품’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제 행위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정]의 상적 특성을 갖는다.<sup>18)</sup>

‘취득’의 개념명에서 ‘찾다’는 행동주(agent), 대상(theme) 등의 논항이 속성으로 나타난다. 행동주(agent)는 [인간] 자질의 명사 논항이 되며, 대상(theme)은 [인공물]과 윤리, 종교, 감정 등의 [정신] 자질의 명사 논항이 된다. 이 논항을 바탕으로 한 격틀 구조는 ‘N1이 N2을/를 Vst-’가 된다.

‘취득’에서의 ‘찾다’는 소유하지 않았던 것을 소유하도록 만들어 가지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유 변화]의 상황 성분을 갖게 된다.

### 3.2.5. ‘검색’ 개념에서 ‘찾다’

예10) ‘보다’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이 14가지가 된다.

18) ‘취득’에서의 ‘찾다’는 실제로 ‘취득’까지 이루어져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갖는 행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취득’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 행위를 완결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예10)에서 사건의 시작은 '보다'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부터이다. 이 의문이 있는 행동주(agent)가 대상(theme)인 '보다의 의미'를 처소(location)인 '사전'에서 검색하여 '보다'의 의미를 밝히게 되는 사건으로 구성된다. 예10)의 사건 상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예11) 개념명 '검색'에서의 상황

- ① 행동주(agent)가 '보다'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진.
- ② 행동주(agent)는 처소(location)인 사전에서 대상(theme)인 '보다'의 의미를 탐색하는 행위를 함.
- ③ 탐색의 결과로 '보다'의 의미 14가지를 밝히게 됨.

위 예11)의 상황은 “'보다'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진-사전에서 그 의미를 탐색-'보다'의 의미를 밝히게 됨”의 사건 순서를 보인다. ① '보다'의 의미에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사건의 시작으로 [기동]의 상적 특성이며, ②는 사전에서 '보다'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과정]의 상적 특성이다. 또한 ③은 탐색의 결과 '보다'의 의미를 밝히게 된 것은 [완결]의 상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검색'의 개념명에서 '찾다'는 행동주(agent), 처소(location), 대상(theme) 등의 논항이 속성으로 나타난다. 행동주(agent)는 [인간], [단체] 자질의 명사 논항이며, 처소(location)는 사전, 간행물, 신문 등의 [출판물]이나 인터넷과 같은 [하이퍼텍스트] 자질의 명사 논항이 된다. 또한 대상(theme)은 의미, 정보 등 [지적생산물] 자질의 명사 논항이 된다. 이 논항을 바탕으로 한 격틀 구조는 'N1이/가 N2에서 N3을/를 Vst'가 된다.

'검색'에서의 '찾다'는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매개체를 이용하여 살펴보고 조사하는 인간 혹은 단체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각 작용]의 상황 성분을 갖게 된다.

### 3.2.6. ‘회복’의 개념에서 ‘찾다’

예12) 6번홀까지 드라이브 흔들렸지만 홀인원 이후 자신감을 찾았다.

예12)에서 사건은 골프 경기의 시작에서 출발한다. 행동주(agent)는 6번 홀까지 오는 과정에서 드라이브가 잘 되지 않은 것이며, 자극(stimulus)인 홀인원이라는 계기 이후 대상(theme)인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예12)를 사건 상황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예13) 개념명 ‘회복’에서의 상황

- ① 행동주(agent)가 골프 경기를 시작함.
- ② 행동주(agent)는 6번홀까지 잘 못하다가 자극(stimulus)인 홀인원이라는 계기를 거쳐게 됨.
- ③ 행동주(agent)는 홀인원 이후 대상(theme)인 자신감을 다시 갖게 됨.

위 예13)의 상황에서는 ‘골프 경기의 시작-경기가 안 풀림-홀인원이라는 계기-자신감 되찾음’의 순서를 갖는다. ①은 이 사건의 시작으로 [기동]의 상적 특성을 갖게 되며, ②는 골프 경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의 상적 특성을 갖는다. ③은 ②의 결과로 홀인원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다시 갖게 된 것으로 [결과]의 상적 특성을 갖게 된다.

‘회복’의 개념명에서 ‘찾다’는 행동주(agent), 대상(theme) 등의 논항이 속성으로 나타난다. 행동주(agent)는 [인간]이나 [단체] 자질의 명사 논항이며, 대상(theme)은 명예, 자신감, 활기 등 [정신] 자질의 명사 논항이 된다. 이 논항을 바탕으로 한 격틀 구조는 ‘N이/가 N2을/를 Vst-’가 된다.

‘회복’에서의 ‘찾다’는 상실했던 정신적 부분을 다시 되찾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신 작용]의 상황 성분을 갖게 된다.

### 3.2.7. '회수'의 개념에서 '찾다'

예14) 오늘 오후 은행에서 돈을 찾아 그 값을 지불할 것이다.

예14)에서 사건의 시작은 행동주(agent)가 어떤 거래 행위를 시작하면 서부터이다. 이 거래에서 거래물에 대응되는 대상(theme)인 '돈'을 은행에서 거두어들여 지불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사건을 구성할 수 있다. 예14)를 사건 상황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5) 개념명 '회수'에서의 상황

- ① 행동주(agent)가 어떤 거래의 행위를 함.
- ② 행동주(agent)는 거래에서 거래된 거래물에 대응하는 대상(theme)인 '돈'을 처소(location)인 '은행'에서 거두어들임.
- ③ 행동주(agent)가 회수한 '돈'으로 거래물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불하는 행위를 함.

위 예15)의 상황에서는 '거래-은행에서 돈을 거두어들임-거래물에 대한 액수를 회수한 돈으로 지불함'의 사건 순서를 보인다. ①은 어떤 거래의 시작으로 [기동]의 상적 특성을 갖게 되고, ②는 은행에서 돈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로 [과정]의 상적 특성을 갖는다. 또한 ③은 회수한 '돈'으로 액수를 지불하는 행위로 이 사건에서 [완결]의 상적 특성을 갖게 된다.

'회수'의 개념명에서 '찾다'는 행동주(agent), 대상(theme), 처소(location) 등이 속성으로 나타나는 논항이다. 행동주(agent)는 [인간], [단체] 자질의 명사 논항이며, 대상(theme)은 돈이나 옷, 가방 등 구체물인 [인공물], 권리, 운영권 등의 [제도], 국가 등의 [조직]과 같은 자질의 명사 논항이 된다. 또한 처소(location)는 은행, 기업 등의 [단체], 옷장, 데스크, 보관소 등의 [인공 건조물], 일본, 대주주, 채권자 등의 [조직], [소유주] 등과 같은 자질

의 명사 논항이 된다. 이 논항을 바탕으로 한 격틀 구조는 'N이/가 N2에서 N3을/를 Vst-'가 된다.

'회수'에서의 '찾다'는 기존에 소유했던 것을 맡겼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유 변화]의 상황 성분을 갖게 된다.

### 3.2.8. '요청'의 개념에서 '찾다'

예16) 건조한 날씨 탓에 목감기로 병원을 찾았다.

예16)에서 사건은 건조한 날씨로부터 시작한다. 이로 인해 행동주(agent)는 목감기라는 원인(cause)으로 처소(location)인 병원에 이르러 해결을 요청하는 사건을 구성하게 된다. 예16)을 사건 상황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예17) 개념명 '요청'에서의 상황

- ① 날씨가 건조함.
- ② 행동주(agent)는 건조한 날씨로 목감기에 걸리게 됨.
- ③ 행동주(agent)가 원인(cause)인 목감기로 인해 처소(location)인 병원에 방문하여 목감기를 제거하기를 청함.

위 예17)의 상황은 '건조한 날씨-목감기 걸림-병원 방문'의 사건 순서를 보인다. ①은 건조한 날씨는 사건의 시작으로 [기동]의 상적 특성을 갖게 되고, ②는 행동주가 목감기에 걸리는 것은 사건에서 [과정]의 상적 특성을 갖는다. ③은 행동주가 목감기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은 [결과]의 상적 특성을 갖게 된다.

'요청'의 개념명에서 '찾다'는 행동주(agent), 원인(cause), 처소(location) 등의 논항이 속성으로 나타난다. 행동주(agent)는 [인간], [단체] 자질의 명

사 논항이며, 원인(cause)은 병과 관련된 [생명현상] 혹은 분쟁과 관련한 [인간활동] 자질의 명사 논항이 된다. 또한 처소(location)는 병원, 의원, 복지센터 등의 [기관] 혹은 [인간] 자질의 명사 논항이 된다. 이 논항을 바탕으로 한 격틀 구조는 'N이/가 N2에서 N3을/를 Vst-'가 된다.

'요청'에서의 '찾다'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해 해결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상대에게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작용]의 상황 성분을 갖게 된다.

### 3.2.9. '부름'의 개념에서 '찾다'

예18) 준호 대입 문제로 원장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을 찾는다.

예18)에서 사건은 자극(stimulus)인 준호의 대학 입시가 그 출발이 된다. 행동주(agent)인 원장 선생님은 대상(theme)인 선생님과 준호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행위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예18)을 사건 상황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예19) 개념명 '부름'에서의 상황

- ① 준호가 대학 입학 시험을 보아야 함.
- ② 행동주(agent)는 준호 대입 문제를 인지함.
- ③ 행동주(agent)는 인지한 문제를 상의할 대상(theme)인 선생님을 불러들이는 행위를 함.

위 예19)의 상황은 '준호의 대학 입학 시험-원장 선생님의 인지-국어 선생님을 불러들이.'의 사건 순서를 보인다. ①에서는 최종적으로 원장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을 불러들이는 행위의 원인이 준호의 대학 입학 시험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기동]의 상적 특성을 갖게 되고, ②에서는 ①의 사실

을 인지한 것으로 사건에서 [과정]의 상적 특성을 갖는다. ③에서는 행동주인 원장 선생님이 인지한 문제를 상의할 대상인 국어 선생님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결과]의 상적 특성을 갖게 된다.

‘부름’의 개념명에서 ‘찾다’는 행동주(agent), 대상(theme) 등의 논항이 속성으로 나타난다. 행동주(agent)는 [인간] 자질의 명사 논항이며, 대상(theme)도 [인간] 자질의 명사 논항이 된다. 이 논항을 바탕으로 한 격틀 구조는 ‘N이/가 N2을/를 Vst-’가 된다.

‘부름’에서의 ‘찾다’는 어떤 일을 위해 상대방을 불러들이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호 작용]의 상황 성분을 갖게 된다.

### 3.3. ‘찾다’의 개념별 속성

앞서 말뭉치 분석을 통해 동사 ‘찾다’의 개념명을 설정하고 각 개념명별로 상적 특성, 상황 성분, 격틀 구조, 논항 등의 속성을 체계화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찾다’의 개별 속성

동사	개념명	속성
찾다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의미: 살피어 찾음.</li> <li>· 상적 특성: [과정]/상황 성분: [지각 작용]</li> <li>· 격틀 구조: N이/가 N2을/를 Vst-</li> <li>· 구성 논항: N1: 행동주(agent)- [인간] 자질 N2: 대상(theme)- [인간], [인공물], [장소], [추상적 존재] 자질</li> </ul>
	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의미: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li> <li>· 상적 특성: [과정]/상황 성분: [정신 작용]</li> <li>· 격틀 구조: N이/가 N2에서 N3을/를 Vst-</li> <li>· 구성 논항: N1: 행동주(agent)- [인간], [단체] 자질 N2: 처소(location)- [인간활동] 자질 N3: 착점(goal)- [정신], [인과], [논리] 자질</li> </ul>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의미: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가서 만나거나 봄.</li> <li>· 상적 특성: [결과]/상황 성분: [장소 변화]</li> <li>· 격틀 구조: N이/가 N2를 Vst-</li> <li>· 구성 논항: N1: 행동주(agent)- [인간], [단체] 자질 N2: 처소(location)- [장소] 자질</li> </ul>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의미: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li> <li>· 상적 특성: [과정]/상황 성분: [소유 변화]</li> <li>· 격틀 구조: N이/가 N2을/를 Vst-</li> <li>· 구성 논항: N1: 행동주(agent)- [인간] 자질 N2: 대상(theme)- [인공물]이나 윤리, 종교, 감정 등의 [정신] 자질</li> </ul>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의미: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한 단서나 증거를 찾기 위하여 살펴 조사함.</li> <li>· 상적 특성: [과정]/상황 성분: [지각 작용]</li> <li>· 격틀 구조: N이/가 N2에서 N3을/를 Vst-</li> <li>· 구성 논항: N1: 행동주(agent)- [인간], [단체] 자질 N2: 처소(location)- 사진, 간행물, 신문 등의 [출판물]이나 인터넷과 같은 [하이퍼텍스트] 자질 N3: 대상(theme)- 의미, 정보 등 [지적생산물] 자질</li> </ul>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의미: 원상태로 회복하다.</li> <li>· 상적 특성: [결과]/상황 성분: [정신 작용]</li> <li>· 격틀 구조: N이/가 N2을/를 Vst-</li> <li>· 구성 논항: N1: 행동주(agent)- [인간], [단체] 자질 N2: 대상(theme)- 명예, 자신감, 활기 등 [정신] 자질</li> </ul>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의미: 도로 거두어들임.</li> <li>· 상적 특성: [결과]/상황 성분: [소유 변화]</li> <li>· 격틀 구조: N이/가 N2에서 N3을/를 Vst-</li> <li>· 구성 논항: N1: 행동주(agent)- [인간], [단체] 자질 N2: 대상(theme)- 돈, 옷, 가방 등 구체물인 [인공물], 권리, 운영권 등의 [제도], 국가 등의 [조직]과 같은 자질 N3: 처소(location)- 은행, 기업 등의 [단체], 옷장, 데스크, 보관소 등의 [인공 건조물], 일본, 대주주, 채권자 등의 [조직], [소유주] 등과 같은 자질</li> </ul>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의미: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li> <li>· 상적 특성: [결과]/상황 성분: [상호 작용]</li> <li>· 격틀 구조: N이/가 N2에서 N3을/를 Vst-</li> <li>· 구성 논항: N1: 행동주(agent)- [인간], [단체] 자질</li> </ul>

		N2: 원인(cause)- 병과 관련된 [생명현상] 또는 분쟁과 관련한 [인간활동] 자질 N3: 처소(location)- 병원, 의원, 복지센터 등의 [기관]이나 [인간] 자질
	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의미: 어떤 일을 위하여 불러들임.</li> <li>· 상적 특성: [결과]/상황 성분: [상호 작용]</li> <li>· 격틀 구조: N이/가 N2을/를 Vst-</li> <li>· 구성 논항: N1: 행동주(agent)- [인간] 자질 N2: 대상(theme)- [인간] 자질</li> </ul>

#### 4. 결론

이상으로 동사 ‘찾다’를 대상으로 말뭉치 예문을 분석하고 각 의미별 개념명을 설정하여 동사 의미망에 활용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의의 결과물이 갖는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사 ‘찾다’의 개념명과 기본 의미, 격틀, 논항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 줌으로써 기존 사전에서의 의미 기술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각 의미들의 개념 영역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사전의 의미 기술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개별 동사의 분석을 통해서 동사 의미망 구축에서 개념 체계를 설정하고 각 동사를 연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동사가 한 사건에서 갖는 내적 시간 구조와 논항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미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넷째, 어휘 사전이나 언어 교육 등에서 개별 동사의 교수-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범모·김홍규, 『한국어사용빈도』, 한국문화사, 2009.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_\_\_\_\_,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 국립국어원, 2005.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http://ithub.korean.go.kr>
- 김현권, 『EuroWordNet의 구성원리와 설계』, 『언어학』27, 한국어언어학회, 2000, pp.145-177.
- 김혜경, 『사전정의문의 중심어를 이용한 동사 어휘의미망 구축 및 활용 평가』,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남경완, 『국어 용어의 의미 분석』, 태학사, 2008.
- 남승호,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도원영·이봉원·최경봉·한정환, 『온톨로지에 기반한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 시고 - <싸움>온톨로지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24, 한국어학회, 2004, pp.41-65.
- 박보연, 『한국어 다의어 동사 ‘열다’의 사전 의미 기술』,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12,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pp.41-66.
- 박종호, 『인식 동사 ‘알다’의 속성 분석』, 『언어사실과 관점』30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2, pp.81-105.
- 오현정, 『동사 ‘결다’의 인지 의미 연구』, 『한국어의미학』32, 한국어의미학회, 2010, pp.141-168.
- 왕 연, 『지각 동사 “듣다”의 의미용법-격과 의미역 구조를 중심으로』, 『중국조선어문』 109,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pp.49-54.
- 유세진·최윤희·이정민, 『한국어 동사 ‘찾다’의 상적 의미- 사건 구조를 통해 본 언어 표현의 인지 문제』, 『국어학』52, 국어학회, 2008, pp.153-264.
- 이기동, 『동사 ‘가다’의 의미』, 『한글』247, 한글학회, 2000, pp.133-158.
- 이동혁·이봉원(2005), 『영역 온톨로지에 기반한 동사 어휘망 구축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17, 한국어의미학회, pp.1-20.
- 이민우, 『국어 동사 ‘지다’의 다의적 의미 관계 분석』, 『한국어의미학』27, 한국어의미학회, 2008, pp.127-150.
- 이봉원·이동혁·도원영, 『의사소통 영역 온톨로지에 기반한 동사의미망 구축』, 『어문논집』52, 민족어문학회, 2005, pp.67-96.

- 이수련, 『동사 ‘보다’의 연구-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민족 어문학』65, 한민족어문학회, pp.89-113.
- 이숙의,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호승, 『현대 국어의 상황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 정병철, 『시물레이션 의미론에 기초한 동사의 의미망 연구』, 한국문화사, 2009.
- 정주리, 『‘가다’ 동사의 의미와 구문에 대한 구문문법적 접근』, 『한국어의미학』17호, 한국어의미학회, 2005, pp.267-294.
- 최경봉 · 도원영,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을 위한 상위 온톨로지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28, 한국어학회, 2005, pp.217-244.
- 최기선 외, 『어휘의미망 구축론』, 한국과학기술원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KAIST PRESS, 2005.
- 최호섭 · 옥철영, 『한국어 의미망 구축과 활용-명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17, 한국어학회, pp.301-329.
- 한정한 · 도원영,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을 위한 어휘의미관계 유형』, 『한국어학』28, 한국어학회, 2005, pp.245-268.
- Gruber, T. R., 『A translation approach to portable ontology specifications』, Knowledge Acquisition 5-2, 1993, pp.199-220.
- Gunter Radden · Rene Dirven, 『Cognitive English Grammar』, 2007.(임지룡 · 윤희수 옮김, 『인지문법론』, 박이정, 2009.)
- Maedche, A., 『Ontology Learning for the Semantic Web, Boston, Dordrecht and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
- Vossen, P.(ed), EuroWorNet: A Multilingual Database With Lexical Semantic Networks, The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8.(한정한 외 공역, 『유로 워드넷』, 한국문화사, 2004.)

**Abstract**

A Study of establishing for Semantic Network of Verb “찾다”  
- Focus on Corpus Example Analysis -

Bak, Jong-Ho

This study attempts to systematize the properties of verbs that can be used for constructing verb semantic network by analyzing corpus examples. For this, corpus examples focused on the verb ‘찾다’ were analyzed and concept names were established. For each concept name, properties such as basic definition, case frame information and argument information were discussed. Aspectual features and situation components shown in each situation were also examined. These results can contribute to constructing verb semantic network and be used for language education and language information processing.

Key Word : semantic network of Verb, Aspectual properties, situation components, Argument, Case frame

박종호

소속 :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조교수

주소 : (300-751)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은어송 2단지 206동 2003호

전화번호 : 041-750-6293 / 010-4455-1726

전자우편 : bwihan1726@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

